



미 증시, FOMC 관망심리 속 혼조세 마감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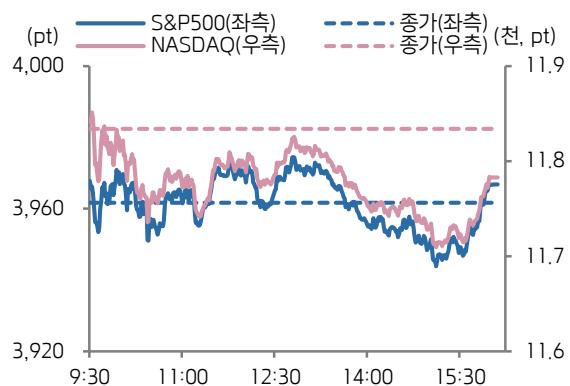
25 일(월) 미국 증시는 7 월 FOMC,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속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부진, 러시아 가스프롬의 가스 공급량 축소 소식(기존공급량 40%, 현 20%) 등에 영향 받으며 혼조세 마감(다우 +0.28%, S&P500 +0.13%, 나스닥 -0.43%, 러셀 2000 +0.6%).

러시아 가스프롬이 독일에 연결되는 노드스트림의 터빈 유지 보수를 이유로 27 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정상량 대비 20% 수준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지난 16 일부터 10 일간 가동이 중단된 후 21 일부터 재개되었으나 이번 소식으로 유럽발 에너지 우려 재차 부각되며 유가는 4 거래일 만에 반등.

미국 6 월 시카고연은 국가활동지수는 -0.19(예상치 0.0, 전월치 0.01)로 발표, 두 달 연속マイ너스 기록. 7 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역시 -22.6(예상치 -18.5, 전월치 -17.7) 기록하며 부진. 독일 7 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8.6(예상치 90.1, 전월치 92.3)을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최저치 기록. 세부지표인 경기예상지수 역시 80.3으로 전월치(85.5)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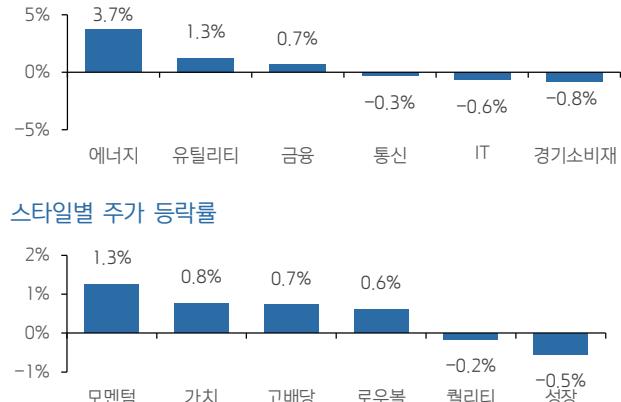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3.7%), 유틸리티(+1.3%), 금융(+0.7%) 등 에너지와 경기 방어 섹터는 강세, 경기소비재(-0.8%), IT(-0.6%), 통신(-0.3%) 업종은 약세. 유가 상승으로 실적 발표를 앞둔 엑손모빌(+3%), 쉐브론(+2.7%) 상승. 스냅발 실적 우려 여파 지속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 엔비디아(-1.7%), 마이크론 (-1.86%), AMD (-0.66%) 등 하락. 월마트(+2.55%)는 8 월 실적 발표에 앞서 2 분기 영업이익과 EPS 가 전년동기 대비 부진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으로 시간외로 -9%대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966.84 | +0.13% | USD/KRW | 1,313.24 | +0.03% |
| NASDAQ | 11,782.67 | -0.43% | 달러 지수 | 106.48 | -0.23% |
| 다우 | 31,990.04 | +0.28% | EUR/USD | 1.02 | +0.01% |
| VIX | 23.36 | +1.43% | USD/CNH | 6.75 | +0.01% |
| 러셀 2000 | 1,817.77 | +0.6% | USD/JPY | 136.66 | -0.02% |
| 필라. 반도체 | 2,825.03 | -0.61%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865.61 | +0.39% | 국고채 3년 | 3.150 | -5.8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207 | -9.4bp |
| Eurostoxx50 | 3,604.16 | +0.21% | 미국 국채 2년 | 3.016 | +4.6bp |
| MSCI 전세계 지수 | 617.56 | -0.02% | 미국 국채 10년 | 2.796 | +4.6bp |
| MSCI DM 지수 | 2,650.82 | -0.49%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90.37 | -0.03% | WTI | 96.7 | +2.11% |
| MSCI 한국 ETF | 58.78 | +0.53% | 금 | 1737.1 | -0.47%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주중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관망심리 부각 가능성
2. 월마트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 유통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최근 수급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세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2 분기 GDP 이외에도 7 월 FOMC, 빅테크 실적 등 주중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방향성 베팅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25 일 발표된 7 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22.6)가 6 월(-17.7)에 비해 둔화된 가운데, 2020년 5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7 월에도 잇따른 심리지표 부진이 침체 불안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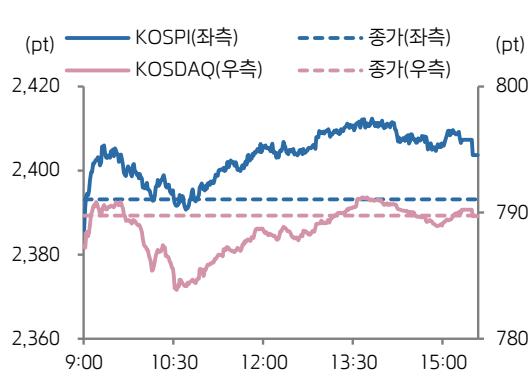
물론 미국 경기침체 진입 여부를 높고 백악관에서는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근거로 침체에 빠지지 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학계, 월가 등 시장에서는 2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침체 진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애틀랜타 연은의 추정치 상으로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2 분기 -1.6% 전망), 6 월말까지 130bp 이상 차이가 확대됐던 10 년물과 3 개월물 간 금리차도 현재 30bp 이내로 대폭 축소된 상태라는 점이 침체 진입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사례. 다만 침체 리스크가 본격 부각되기 시작했던 5 월 이후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레벨 다운이 큰 폭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침체가 확정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의 기정사실화 인식으로 받아들일 전망.

전거래일 미국 7 월 제조업 PMI 부진에도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주 강세 속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국내증시(코스피+0.44%, 코스닥 -0.01%)는 금일에도 주중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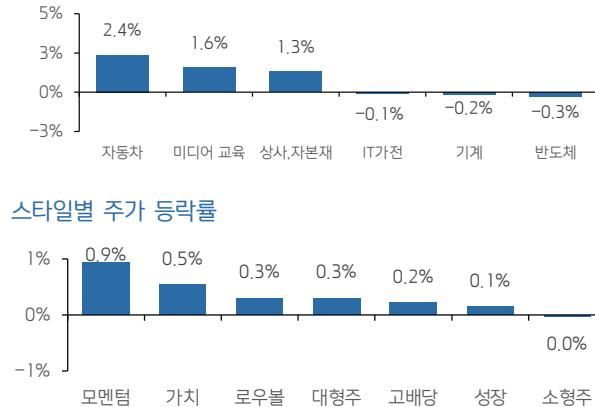
또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0.1%)가 지난 1 분기에 이어 2 분기 실적도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른 저마진 생필품을 제외한 의류 등 고마진 제품 판매 축소 등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연간 EPS 가이던스 기준 -1%대에서 -11~13%대로 하향). 이 여파로 월마트의 시간외 주가가 9%대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금일 관련 국내 유통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 상 투자심리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금번 월마트 실적 부진 이슈는 이용자 지출 패턴 변화, 수요부진에 따른 특정 혹은 주력 상품 재고 관리 문제(재고 과잉 등)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관점에서 재고순환지표 상 상대적으로 재고 문제에서 자유로운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관련주들은 금일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